

근대 전환기 여성 번역가 김명순의 「相逢」 번역 - 작품 선택과 번역 방식을 중심으로

김 자 경
(이화여대)

1. 들어가는 말

박진영(2013: 224)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번역가란 “근대문학의 주체는커녕 역사성이 없는 존재요 존재감이 없는 픽션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번역가라는 존재가 근대문학의 주체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으며 근대문학사 연구에서 번역 주체가 심각하게 소외되어왔다는 문제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한국 근대문학사의 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 주체를 전면에서 세우고 번역을 매개로 전개된 근대문학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김옥동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김옥동(2010a)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번역이 미친 영향을 탐구하며 근대 초창기 번역 주체의 태도를 논의하였고, 세 번역가 서재필, 최남선, 김억을 중심으로 번역문학사를 1890년대 발아기, 1900~1910년대 성장기, 1920년대 개화기로 나누어 정리했다(2010b). 번역 주체를 통해 한국 근대문학사를 읽어낸 연구로 의의가 크지만, 박진영(2013: 236-237)은 근대 번역문학사가 정전 위주로 재편성될 위험성이 있고 『소년』과 『태서문예신보』 사이, 『태서문예신보』와 『해외문학』 사이의 슬한 번역 주체가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

었다. 김병철, 김옥동의 저작 외에는 제대로 된 번역문학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강소영, 윤정화 2013: 281) 번역문학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 유의미한 번역 활동을 했으나 아직 조명받지 못하고 묻혀 있는 번역 주체들이 실천한 번역 작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고, 개별적 번역양상을 구체적으로 논구하고 문학사적 맥락에서 이들의 번역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대서문예신보』와 『여자계』가 발간된 이후이자 『해외문학』과 『신여성』은 창간되기 이전이었던 시기, 즉 서양문학의 소개와 번역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최초의 여성잡지가 발행되었으나 해외문학과와 근대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개벽사에서 발행한 여성 종합지는 등장하기 이전이었던 1922년에, 여성 작가 김명순이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의 단편소설 *The Assignment*(1834)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개벽』 29호에 발표한 「相逢」을 중심으로 김명순의 번역 성과를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 근대문학 장에 등단한 최초의 여성 작가 김명순은 1922년 10편의 작품을 번역하여 발표했을 뿐 아니라 포의 시와 단편소설을 최초로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한 번역가로서 번역 작품 수와 작품 선택 모두에서 주목할 만한 번역 성과를 보여준다. 1920년대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준 여성 번역가이지만, 작가가 아닌 번역가로서의 김명순을 조명하는 연구는 많지 않고 김명순이 번역한 유일한 소설 작품 「相逢」을 독자적인 연구 대상으로 논의하는 연구는 아직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相逢」번역을 중심으로 김명순이 번역 주체로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왜 포의 *The Assignment*을 선택하여 번역하였으며 자신의 작품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지점에서 어떻게 번역하였는지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2. 1920년대 여성 번역가 김명순

1920년대는 『개벽』, 『금성』, 『해외문학』 등 동인지를 주축으로 번역문학이 크게 확장했던 시기인 만큼, 남성 문인들의 번역 활동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고 작품 분석과 번역론에 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김준희 2007; 손성준

2015; 우수영 2013; 이단비 2021; 정응수 2020; 최라영 2012; 최주한 2016; 허윤희 2005 등).

하지만 여성 번역가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강소영과 윤정화(2013), 김운선(2013)이 근대 여성의 번역을 논의하였으나 개별 번역가보다는 번역 매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1920년대 여성 번역가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많지 않은 것은 근대 초기 여성 번역가의 활동이 많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김옥동(2010b: 168)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활동이 제한되던 근대 계몽기에 외국의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주체는 대부분 남성이었으며 외국 선교사 부인들이 아니라 한국 여성이 직접 번역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에 들어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 여성번역사를 개괄하며 많은 여성 번역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조명한 현(Hyun 2004), 김명순과 김자혜, 이화여전의 여성 지식인들, 모윤숙, 노천명으로 이어지는 식민지 시대 여성 번역가의 사적 계보를 그린 박지영(2012)의 연구는 의미가 매우 크다. 박지영(2012)은 여성 지식인의 존재 자체가 미미했던 근대에 여성 번역가는 수적으로는 열세라 하더라도 때로는 당대 남성들보다 먼저 근대 이론을 번역하며 전위적 지식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투쟁했으며, 이들이 이뤄낸 번역 성과는 당대 문학적 조류를 대변할 수 있고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어왔기에 문학사에 문혀 있는 여성 번역가들의 성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김명순보다 조금 앞선 시기인 1910년대 여성 번역가 백경애를 조명한 김민지(2022)의 연구도 주목할 수 있다. 여학교 교사였던 백경애는 『우리의 가명』 현상공모에 1등 당선자로 소개된 후 1914년 미국인 선교사의 글 *Village Life in Korea* 세 장을 번역하여 번역 후기와 함께 「조선의 촌락생활」을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 백경애의 번역에는 원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으며 식민지 여성의 ‘근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성 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특징적 양상이 나타난다고 지적되었다.

다만 이 연구를 포함하여 근대 초기 여성 번역가로 논의된 주체는 대부분 교사, 기자 등 문인이 아닌 여성 지식인이지만 근대의 번역 주체 대다수는 문인이면서 번역 활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활발한 창작 활동을 보여준 작가인 동시에 번역가로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준 김명순을 집중 조명할 필요가 있

다. 손성준(2020: 112-114)은 “신문학은 서구문학의 이식과 모방에서 자라났다”는 임화의 발언을 전하며, 번역과 창작을 넘나들었던 주체들로부터 생산된 텍스트는 모종의 인과성과 상호 보완성을 내장한 채 신문학사의 육체를 형성하고 있기에 작가가 수행한 번역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근대문학 형성 과정에서 번역은 창작과 긴밀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작가의 번역은 창작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그의 문학적 사유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 주체가 남긴 번역은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 강조한 것이다. 박진영(2013: 244) 역시 근대 번역문학을 도맡은 주역은 대다수 작가 겸 번역가였기에 작가의 번역 성과는 논의할 가치가 크며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인정받은 작가인 동시에 번역가라면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번역 작품을 발굴하여 재평가하는 일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70여 편에 달하는 시, 소설, 수필, 희곡, 번역 작품을 남긴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신혜수 2016: 179) 김명순이 수행한 번역 성과를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김명순은 포의 시와 소설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근대 문단에 소개한 번역가이지만 작가로서의 성과에 논의가 편중되면서 번역가로서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고 김명순이 번역한 유일한 소설 작품인 『相逢』은 아직 개별 연구 대상으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김명순은 1922년 『개벽』에 포의 시 두 편과 소설 한 편을 번역하여 발표하였으며 「표현과의 시」라는 제목으로 여러 편의 시를 번역하고 이를 표현과, 인상과, 후기인상과, 악마과의 시로 분류하였다. 여성지가 아니라 종합지인 『개벽』에 작품을 발표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20년대 『개벽』에 번역 작품을 발표한 김명순과 『신조선』에 발표한 석란을 제외하면 다른 여성 번역가들의 작품은 여성지에만 실렸고(Hyun 2004: 120) 이러한 이유로 근대 여성 번역가의 번역 활동은 『이화』, 『신여성』, 『우리의 가명』 등 여성 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 발표된 번역물을 토대로 논의되어왔다(강소영과 윤정화 2013, 김민지 2022, 김윤선 2013). 이처럼 여성을 주요 독자층으로 삼고 있는 잡지가 아니라 『개벽』에 번역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김명순이 1917년 최남선이 주간하던 『청춘』에 단편소설 『의심의 소녀』로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한 작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로 보인다. 현(2004: 110)은 당시 많은 여성 번역가들은 간결한 일상 언어, 구어체다운 한국어를 통해 미적 효과를 거두는 방

법을 택했으나 김명순은 이와 달리 어렵게 보이는 문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김명순의 번역 작품에 나타나는 문체적 차이를 언급하였는데, 작가로서의 배경이나 여성지가 아닌 종합지에 작품을 발표했다는 점이 문체적 특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민지 시기 중에서 1920년부터 24년까지의 시기는 식민지 지배정책이 표방한 ‘문화정치’의 공간에서 ‘문화운동’이라는 여러 활동이 전개되고 동인지가 폭발적으로 쏟아져나오며 문학의 자율적 영역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표면화되던 시기였으며(김행숙 2005: 31) 동인지 등 발표지면의 확대로 번역 텍스트의 양이 급증했던 시기이다(박지영 2012: 16). 특히 단편소설의 번역이 한국 근대소설사에 원형을 제시하며 큰 영향을 미쳤던 시기(윤경애 2020: 144)임을 고려할 때, 근대 문학번역사에서 1920년대 초 단편소설의 번역은 중요성을 지닌다. 주로 시가 번역되고 단편소설의 완역은 많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김명순의 단편소설 「相逢」 완역은 높이 평가된다(Hyun 2004). 1920년대 신문에서는 통속성이 강한 장편소설 위주로 번역이 이루어졌고 동인지에서는 순예물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번역이 이루어졌으나 동인지도 창작에 지면을 더 많이 할애하였기 때문에 단편소설의 번역은 창작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많지 않았고 『개벽』의 간행 기간에 나온 114편의 소설 중에서 번역은 18편에 불과했다(손성준 2014: 63). 특히 김명순이 포의 번역을 발표했던 1922년, 『개벽』은 창간 2주년 기념으로 여덟 명의 문인들이 애독 작품을 직접 번역하고 엮어 발표했고 현철은 『개벽』의 창간 2주년을 맞아 특별부록을 통해 문학번역이 조선문단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손성준 2014: 45). 이 시기 『개벽』에 실린 김명순의 단편소설 번역 성과를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이유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김명순의 번역이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 번역의 경우 원문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김옥동(2010a: 171)은 김명순이 자신이 번역한 시를 표현파, 상징파, 후기인상파, 악마파의 시로 나눈 것은 높이 평가했지만 「헬렌에게」 번역문을 살펴보면 원문과 상당히 거리가 있으며 “그렇게 잘 된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영(2012: 25) 역시 보들레르의 시를 발췌 번역한 김명순의 작품 「저주의 여인들」에 관해 의역에 가깝고 오역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원문은 4행이지만 김명순의 번역은 5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3행은 두 행으로 분절하는 등의 파격을 통해 ‘욕망’과

‘고통’의 정서를 강조했는데, 이는 김명순이 원문의 통사구조나 의미보다 자신이 느끼는 정서적 감각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며 창조적 번역에 가까운 번역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설 번역의 경우에도 정확한 내용 전달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적절하지 않은 어휘 번역이 거론되었는데, 김현실(1980: 38-41)은 「相逢」 번역에서 현재형과 과거형의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칭대명사의 번역이 어색하며 이탤릭체나 외래어, 인용 등의 번역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박지영(2012: 28) 역시 소설에서도 번역상의 오류가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는 텍스트 구문의 내용적 정확성보다는 텍스트에서 풍겨나오는 감각적인 정서를 살리고자 시도했기 때문일 것이라 설명한다. 「相逢」을 포함하여 1920~30년대의 번역 소설 13편을 대상으로 어휘 번역의 양상을 살펴본 김정우(2006)는 한자어와 한문어구의 남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전체적인 양상을 확인하며, 「相逢」의 경우에도 현대국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어휘가 사용되었고, 문화 충격의 완충을 위한 귀화 전략과 한자어의 남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김명순의 소설 번역이 개별 연구 대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오역과 의역, 한자어의 남용, 적절하지 않은 어휘 번역 등 번역 결과물에서 발견되는 아쉬운 부분들이 주로 거론되어왔으며 「相逢」에 투영되고 있는 번역 주체로서의 의식을 규명하거나 번역태도에서 드러나는 독자성을 밝히고 문학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성격의 논의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1920년대 초는 외국 문학의 수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아직 번역이 본격적 궤도에 오르기 전이었고 원작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충실성의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시기였음을 고려할 때, 원문 반영의 결여나 부정확성을 이유로 폄하할 수 없으며 오역 중심의 논의로 번역의 가치를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김명순이 왜 포의 *The Assignment*을 선택하여 번역하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당시 작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번역 작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작품을 선택하는 안목을 문단인들에게 검증받는 일이기도 했고 작가로서의 자의식이 크게 작동하는 부분이었음(손성준 2014: 48)을 고려할 때, 김명순은 『청춘』에 등단하고 『창조』와 『폐허』의 동인으로 활동한 작가로서 번역할 작품을 신중하게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특히 김명순은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작품을 선택하여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번역한 작품을 평가하여 분류하

는 등 작품 선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으며, 번역 작품의 주제 측면에서도 젊은 여성의 죽음에 대한 시를 번역하는 등 전통 문학에서 흔치 않은 접근을 보여준다(Hyun 2004: 110). 시 번역에서도 베를렌스를 중심으로 애상적 정조가 주를 이루던 당대 시단의 일반적 경향과는 다른 경향의 상징주의 시를 선택하여 번역하였다(박지영 2012: 19-20). 박지영(2012: 12)은 김명순의 번역 작품에는 여성이 등장한다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잡지가 아니라 종합지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굳이 여성 관련 텍스트를 선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번역 작품의 선택에 여성 작가로서의 자의식이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작가 김명순에게 「相逢」 번역 작업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인지, 번역 주체로서의 자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The Assignment*을 선택한 배경을 재구성하고 김명순이 번역한 작품과 그가 창작한 문학세계가 닿아있는 접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3. 「相逢」 작품 선택의 배경

1834년에 발표된 포의 단편소설 *The Assignment*을 번역한 「相逢」은 김명순이 번역한 작품 중에서 유일한 소설 작품이다. 김명순은 1922년 포의 단편소설과 시를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는데, 김명순을 제외하면 포의 시는 1930년부터 번역되었고 소설은 역자 미상의 번역이 1925년, 정인섭의 번역은 1927년에 발표되었으며, 해외문학과는 1927년 창간호에서 포 문학을 높이 평가하며 그 의의를 소개하였고, 포의 단편소설이 널리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1939년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앞선 시기라 할 수 있다.

김명순은 「相逢」에 덧붙인 부언을 통해 번역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번역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으며¹⁾ 근대문학에서 포의 문학이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 김명순은 당대 다른 여성 문인과 달리 평문을 많이 쓰지 않았으며 자신의 번역 방법이나 번역론에 대한 솔회를 하지 않았다.

近代文學史를 뒤칠 적에는 누구든지 포의 超人間的의 위대한 힘을 긍정치 않을 수 없습니다. 포가 近代文學에 影響을 얼마나 크게 주었는지 佛國에 보-드레-르와 英國에 와일드 에트 등과 기타 象徵派 神秘派를 爲始하여 近代 藝術家치고 누구든지 직접간접으로 포-에게 感化를 받지 안흔 이가 업는 것을 보아도 포의 위대를 알았습니다. 만일 포-라는 神秘兒가 업섯드면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에 대한 豫見을 가지지 못하고 구린내가 나는 自然主義 속에서 가티 썩었슬는지도 알 수 업섯습니다. 그리고 포-는 보-드레-르와 가티 惡魔藝術의 二大本尊인데, 요즘 우리 文壇及思想界에서는 아즉까지 舊套를 벗지 못하고 空然히 허위적 공리에 눈 어두워서 惡魔藝術의 眞意를 잘 이해도 못하면서 비난하는 膚淺한 常識家가 많흔 듯합니다.

이 글에서 김명순은 포를 악마파 예술의 중요한 작가로서 높이 평가하며, 포의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당시 한국 문단의 무지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악마파 예술을 통해 새로운 미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명순이 말하는 ‘악마예술’은 추악, 퇴폐, 괴기, 전율, 공포 따위의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려는 예술적 시도로, 19세기 말엽 유럽에서 일어난 문예사조나 사상의 경향을 의미한다(김옥동 2010a: 173). “포가 없었더라면 자연주의 속에서 같이 썩었을 것이다”라는 김명순의 언급은, 이민영(2009: 408)에 따르면, 자연주의를 한물간 예술 사조로 비판하며 상징파, 신비파의 작가들이 문학사에 끼친 영향에 심취하며 받아들이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식민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20년대 초반 계몽주의와 문명, 개화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지고 자연주의의 계몽성에서 탈피하여 상징주의에 관심이 커진 문단의 경향을 보여준다. 박지영(2012: 21)은 김명순이 표현주의가 삭막한 현실세계 속에 사는 개인의 고통스러운 정신 상태를 표현하고, 이성적인 것보다 공포와 우울 등 개인의 깊은 내면을 표현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인물의 내면적 체험을 중요시한 것에 매료된 듯하다고 해석한다.

포를 높이 평가한 김명순은 국내에서 최초로 포의 시 「大鴉」, 「헬렌에게」(『개벽』 제28호, 1922. 10. 1.) 두 편을 번역하였고²⁾ 이어서 포의 소설 「相逢」

2) 안미영(2019: 242)에 따르면, 김명순이 번역한 외국 시는 표현파, 상징파, 후기인상파, 악마파로 나뉘는데 포의 시 「大鴉」, 「헬렌에게」는 악마파의 범주에 속하며, 포의 시

을 번역하였다(『개벽』 제29호, 1922. 11. 1.). 김명순의 「相逢」이 발표된 후 한국에 번역되어 소개된 포의 소설은 「黒苗物語(*The Black Cat*)」(역자 미상, 『시대일보』, 1925. 12. 16.~12. 31.), 「赤死의 假面(*The Masque of the Red Death*)」(정인섭 역, 『해외문학』 창간호, 1927. 1. 17.)이다(안미영 2019: 243).

일본에서의 포 문학 수용을 논의한 연구(Tatsumi 2020: 354~355)에 따르면, 1911년~12년 여성 번역가 히라츠키(Hiratsuka)가 포의 작품 11편을 일본어로 번역했으며 이 작품집에 *The Black Cat*, *The Masque of the Red Death*는 포함되었으나 *The Assignment*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1913년 발간된 포의 첫 작품집에 수록되었던 작품은 *The Gold Bug*, *A Descent into the Maelstrom*,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이다. 1913~1926년 일본에서 포 작품집의 첫 번째 붐이 일어났지만, *The Assignment*을 일본어로 처음 옮긴 번역가는 나오지로 사사키(佐々木 直次郎, Naojiro Sasaki, 1901~1943)로, 이 작품을 포함해 포의 작품 47편을 번역하여 1931~33년 발표하였다(Tatsumi 2020: 356). 포의 작품에 관심이 높았고 포의 많은 작품을 이룬 시기부터 번역하기 시작했던 일본에서도 김명순이 번역한 *The Assignment*은 비교적 늦게 주목을 받은 작품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포의 소설 작품 중에서도 *The Black Cat*, *The Masque of the Red Death*가 아니라 *The Assignment*을 선택하여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한 김명순의 결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세 작품 모두 죽음을 중심 소재로 삼고 있으며 공포의 감정을 잘 보여주는데, 안미영(2020: 333)은 이에 대해 1920년대 한국 근대 문단에 번역된 포의 세 소설은 공포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당시 한국 문단의 문예 흐름과 방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한다. 낭만주의, 퇴폐주의, 예술지상주의 풍조가 1920년대 문인들의 자의식과 작품세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인간이 직면한 공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죽음을 소재로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고 공포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미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죽음이 세 작품 모두에서 주요 소재로 활용되며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공포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나, 죽음을 통해 다루는 주제에 차이가 있다. 안미영(2020: 348)에 따르면, *The Black Cat*은 죽음에 이르는 광

기와 폭력성, *The Masque of the Red Death*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허세, *The Assignment*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보여준다. 즉, *The Black Cat*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하는 광기와 폭력을 보여주고, *The Masque of the Red Death*는 죽음과 인간의 대립을 통해 인간의 나약한 정서를 탐구하지만(안미영 2020: 342-343), 김명순이 번역한 *The Assignment*은 연인이 각자 자택에서 거의 동시에 자살하는 사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가 죽음을 택하는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며,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집중 조명한다.

죽음을 통해 인간의 광기와 폭력성, 나약함을 보여주는 공포물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다루는 작품인 *The Assignment*은 사랑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김명순의 문학세계와 맞닿는 지점이 많은 작품으로 설명된다. 안미영(2020: 340)은 김명순이 자신이 추구하는 문학의 주제인 사랑을 화두로 한 작품을 번역했다고 설명하며, 박지영(2012: 26)은 이 작품은 환상성, 공포 등의 모티프가 죽음마저 초월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낭만적인 주제와 만나며, 낭만적 사랑과 남녀의 정신적 교감을 증시하는 이상적 사랑에 대한 열망을 작품을 통해 보여준 김명순에게 사랑은 가부장제적 질서와 봉건적 윤리의 억압에서 탈피할 탈출구이며, 포의 대표작이 아니라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김명순의 문학적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안숙원(2013: 101)은 김명순이 이 작품을 번역한 것은 포의 신비하고 악마적인 탐미주의와 추리소설 형식에 매료된 까닭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부관계와 어머니-아이의 운명을 다룬 가정비극이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이 작품의 내용을 요약하면, 여색을 밝히는 늙은 공작의 아름다운 부인이 어느 날 밤 어린 아이들을 바다물에 빠뜨렸으나 그녀의 젊은 연인이 극적으로 아이들을 구해주고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이후 부인은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며 연인도 ‘나’를 자신의 저택에 초대하여 술을 마시다가 독주를 마시고 죽는다. 이를 고려할 때 김명순이 *The Assignment*을 선택하여 번역한 것은 자신의 작품세계에서 중요한 주제인 전통적 결혼제도에 대한 거부와 낭만적 사랑의 실천을 서사화할 뿐 아니라 모성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비극적 결말과 죽음의 이상화를 그리는 작품이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김명순의 소설에서 전통적인 결혼제도는 순수한 사랑의 성취에 늘 장애의

요인이 되고 김명순은 자유연애의 이상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복해서 다루며 형식적 결혼이나 가족제도를 벗어난 곳에 위치한 유대관계의 순수성에 주목한다(송명희 2014: 329-331). 신혜수(2016: 187-188)에 따르면, 근대 전환기 여성들에게 자유연애는 인습적 가족제도와 혼인제도에 저항하고 근대적 삶의 방식을 실천하기 위한 문제였고 김명순의 소설 대부분은 자유연애를 주요 모티프로 삼아 서사가 진행되는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유연애가 일대일 관계가 아닌 삼각관계의 구도로 나타나 문제시되었다. 이상적 연애는 김명순의 전작을 관통하는 중요한 모티프로 나타나는데 김명순은 낭만적 사랑에서 섹슈얼리티를 배제하는 이상적 연애에 천착하였으나, 이상적 연애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전작을 걸쳐 삼각관계가 반복 변주되며 과묵으로 종결됨으로써 자유연애의 불가능성을 보여준다(신혜수 2016: 190-193). 김미교(2008: 62)는 김명순의 문학은 새로운 애정의식을 제시하고 형식적 결혼이라는 제도를 넘어서는 파격성을 보여주며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김명순 문학의 자유연애 사상은 정신적 합일을 우위에 두는 낭만적 사랑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한다.

구관습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사랑관의 제시를 보여주기 위해 구관습에 의한 결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자유연애만을 합리적인 도덕률로 표현하면서 김명순이 쓴 거의 모든 소설에는 유부남과 처녀, 유부녀와 미혼남, 유부녀와 유부남의 사랑 관계가 등장하는데(김복순 1995: 56-57), *The Assignment*의 등장인물은 늙은 공작과 젊고 아름다운 공작부인, 공작부인의 연인으로, 유부녀와 미혼남의 사랑 관계가 그려짐으로써 김명순 작품세계의 전형적 특징인 결혼제도에 대한 부정 및 결혼제도와 분리된 낭만적 사랑을 전면화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늙은 공작의 모습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이와 대조적으로 두 연인은 아름답고 이상화된 존재로 신격화되는데, 베니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작부인은 아프로디테에 비유되며 여신과 같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고, 공작부인의 젊은 연인은 헤라클레스처럼 초인적 힘을 발휘하여 아이를 구하고 콤모두스 황제의 대리석 조각상처럼 아름다운 생김새를 가지고 있으며, 예술을 사랑하는 부유한 시인으로 그려진다. 또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인 이 소설은 청년과의 만남을 회상하는 관찰자 ‘나’의 목소리를 통해 청년과 나누었던 대화를 서술하며 여러 대목에서 공작부인을 향한 청년의 정신적인 사랑을 반복

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유부녀와 미혼남 간의 혼외의 성을 낭만적 사랑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김명순의 작품세계와 닮아있다. 특히 예술을 사랑하는 청년이 섹슈얼리티가 소거된 정신적인 사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김명순이 작품 속에서 추구하는 육체적 관계를 배제한 이상적인 연애의 모습을 보여준다.

김복순(1995: 58)에 따르면, 김명순의 소설에서는 모성에 관한 언급은 배제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김명순의 소설 「의심의 소녀」에서도 가부장적 사회 현실에 좌절한 여성이 어린 딸을 두고 자살하며 모성성의 허구를 보여준다(안숙원 2013: 103). *The Assignment* 역시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자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 작품 속의 여주인공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이보다는 연인과의 사랑을 우선시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어있는데, 아이가 바다로 떨어졌으나 어머니의 시선은 아이가 떨어진 바다가 아니라 연인이 있는 곳을 향하고, 연인이 아이를 구해준 후 어머니의 손은 아이가 아니라 연인의 손을 스치며, 얼굴을 붉히며 연인에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아이가 바다로 떨어진 것도 사고나 실수가 아니라 연인과의 약속을 위한 조건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아이를 구해준 연인에게 ‘당신이 이겼어요’라고 속삭이며 죽음을 통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면, 모성애를 보여주는 헌신적 어머니라기보다는 사랑 없는 결혼 속에서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연인과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여주인공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여성』 등 여성지에서도 회생적 모성 담론을 강조하던 시기임에도(김옥영 2003: 190-191) 모성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여성상을 형상화하는 김명순의 작품과 닮아있다.

또한 *The Assignment*에서 공작부인은 자신의 집에서 자살하고 그녀의 연인은 독약을 넣은 술을 먹고 자살함으로써 사랑하는 두 남녀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종결되는데, 김명순의 작품세계에서도 주인공들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김명순은 현실적 결합이 불가능한 사랑을 그리기 때문에 비극적 결말은 리얼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행된다(김복순 1995: 63). 김명순의 희곡 「어부 자息」에서도 연인을 의붓동생에게 빼앗기게 된 여주인공은 연인과 함께 독약을 마시고 자살한다. 현실적 결합이 불가능한 사랑과 죽음으로 귀결되는 김명순 작품의 비극적 결말

은 *The Assignment*에서도 나타난다. 작품 속에서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연인을 만나기 위한 꿈의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죽음을 통해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김명순의 시선은 1920년대 팽배했던 낭만주의와 상통하며, *The Assignment*에서 보여주는 남녀의 죽음도 파멸과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자 완성의 방식이기 때문이다(안미영 2020: 341). 김명순의 작품에서 여성이 추구하는 정신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은 현실 속에서 가능하지 않고 오직 현실 세계를 벗어난 공간에서만 가능하기에 작품 전반에 비애의 정조가 깔리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유토피아로 설정되고 이 과정에서 죽음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것으로 승화되며 이상향으로 가기 위한 죽음이 이상화된다(이민영 2009: 416-421). *The Assignment*에서도 두 연인이 사랑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결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청년의 시와 여러 인용문을 통해 작품 전반에 걸쳐 죽음을 이상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처럼 *The Assignment*은 김명순이 악마파 예술로 높이 평가한 포의 작품인 동시에 포의 소설 중에서도 김명순이 작가로서 추구하는 주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작가 김명순의 예술관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번역 작품의 선택 배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The Assignment*에 나타나는 김명순 작품세계의 특징, 즉 낭만적 사랑의 추구, 전통적 결혼제도에 대한 부정, 모성의 배제, 사랑의 완성을 위한 자살과 비극적 결말이 나타나는 장면에 주목하여 번역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 「相逢」 번역 방식

김명순이 포를 번역했던 시기는 『금성』과 『해외문학』 창간 이전으로, 기점 텍스트에서 직접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중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시기이다. 『개벽』에 실린 문학 작품의 번역은 대부분 중역이었으나 중역을 드러내거나 원본을 밝히지 않았으며(한기형 2011: 79), 김명순의 번역 작품에는 일본식 한자어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김명순의 일본 유학 시기를 고려할 때 포의 일역본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박지영 2012: 22), 「相逢」은 중역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어왔다. 김옥동(2010a: 171)은 김명순이 일본어 번역본을 참고하여 번역하거나 일본어 번역에서 중역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안

숙원(2013) 역시 일본어 저본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相逢」의 중역 가능성이 여러 선행 연구에서 거론되어왔으나 아직 일본어 저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본 연구는 번역 방식의 논의에서 중역 여부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어 저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지영(2012: 22)에 따르면, 일본에서 포의 전집은 1900년도에 발행되었고 소설 전집도 1912년 발간되었으므로, 김명순이 일본에 유학하던 1918~1921년에 일역본을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된다. 하지만 일본의 포 문학 수용을 논의한 타즈미(Tatsumi 2020: 355)에 따르면, 포의 단편소설을 번역하여 모은 작품집이 김명순이 일본 유학을 하던 시기에 이미 발간되긴 했으나 *The Assignment*을 일본어로 처음 옮긴 번역가(佐々木 直次郎)는 1931년~33년에 5권의 포 작품집(Collected Tales of Poe)을 발간하였음을 고려할 때, 김명순의 번역이 오히려 더 앞선 시기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개벽』에 실린 작품이 대부분 중역이었고 김명순이 유학하던 시기에 일본어로 번역된 포의 작품 다수를 접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The Assignment*의 일역본을 접했을 가능성은 아직 불분명하며 일본어 중역을 거치지 않고 원문에서 직접 번역된 텍스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³⁾

김윤선(2013: 249)은 근대 시기 번역된 텍스트의 분석에서 일역본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고 번역 경로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그렇기 때문에 번역 분석의 한계가 있고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한계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이를 당시 번역이나 번역 연구의 특성으로 전제하고 가시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번역 논의의 출발을 삼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도 이와 같은 의

3) 본 연구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The Assignment*을 번역한 번역가(佐々木 直次郎)의 작품을 구할 수 없었는데, 아마존 등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한 이 번역가의 포 소설 작품집에 *The Assignment*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주환(2016)에 따르면 이광수의 톨스토이 번역 연구에서도 저본을 찾아서 확인한 결과 오역이나 의역이라 추정되었던 부분이 사실 저본에 충실한 번역이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본 확인 작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번역 저본 없이 번역문의 오역과 의역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석 사례를 모두 김명순의 의도적 선택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런 한계를 고려할 때 김명순의 「相逢」 번역 경로를 추적하는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견에 동의하며, 「相逢」의 일본어 저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중역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김명순의 번역본을 출발점으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김명순의 「相逢」 번역을 살펴보면 원문 내용을 대체로 충실히 전달하고 있지만, 문단을 자유롭게 합치거나 분리하고 긴 문장을 자르거나 연결어를 추가 하며 원문 내용의 일부 생략이나 추가가 나타나는 등 원문의 형식과 내용을 완벽하게 충실히 따르지는 않는다. 다만 근대 전환기의 번역 규범이 지금과 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번역문의 품질을 평가하거나 번역 오류를 논의하기보다는 김명순의 작품세계가 보여주는 특징이 나타나는 장면에서 작가로서의 자의식이 엿보이는 개입을 주목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낭만적 사랑의 추구, 전통적 결혼에 대한 부정적 묘사, 모성의 배제, 죽음과 비극적 결말이 나타나는 장면에서의 번역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낭만적 사랑의 추구

소설 원제 “The Assignment”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전달하고 있으나, 김명순의 번역본 제목 ‘상봉’에는 ‘비밀스러운’ 만남이라는 뉘앙스가 빠져있다. 최근 번역본은 ‘밀회’, ‘밀회의 약속’으로,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되었다.⁴⁾ 안숙원(2013: 98)은 연인들이 은밀한 만남을 약속하는 원제와 달리 오랜만의 반가운 해후인 듯 번역되었다고 지적했고 김옥동(2010a: 172) 역시 이 작품의 제목 번역은 ‘상봉’보다는 ‘밀회’가 더 걸맞다고 지적했지만, 안미영(2020: 341)은 작중 남녀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난다’는 의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상봉’이라는 제목이 김명순의 예술관과 의도를 잘 보여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필자도 ‘상봉’이 김명순이 추구하는 주제 의식을 더 잘 반영하는 제목이라 생각하는데, ‘밀회’는 남몰래 만나는 것, 즉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두 사람의 만남을 강조하지만, ‘상봉’은 헤어졌던 두 사람의 재결합,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만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밀회’가 결혼제도 속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작부인과 젊은 시인의 만남을 보여

4) 권진아의 번역본(에드가 앨런 포 전집 1, 시공사, 2018)에서는 ‘밀회’로 번역되었으며, 홍성영의 번역본(우울과 몽상, 하늘연못, 2002)에서는 ‘밀회의 약속’으로 번역되었다.

주는 제목이라면, ‘상봉’은 현실에서 함께할 수 없는 연인이 죽음을 통해 다시 만난다는 서사를 부각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작품의 서두와 말미에서는 죽은 아내를 추도하는 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시에서 나오는 ‘meet’를 김명순은 ‘만남시다’로 번역하지 않고 ‘상봉하리라’로 번역하여 제목 ‘상봉’의 의미를 강하게 환기시킨다.⁵⁾ 작품의 서두에서는 인용문을 통해, 이후에는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죽은 연인을 향해 ‘반드시 그대와 상봉하리라’를 외침으로써 사회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만남보다는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원작에서는 똑같이 반복되는 이 시가 김명순의 번역에서는 두 번째로 나올 때 표현이 약간 바뀌었다는 점도 볼 수 있다.

예문(1)

ST: Stay for me there! I will not fail

To meet thee in that hollow vale.

TT: 나를爲하야거기뎡을러라

내반듯이空虛한溪間에서 그대와상봉하리라 (앞부분)

나를爲하야거기뎡을러라 나는

반듯이그뵈인溪間에그대와상봉하리라 (뒷부분)

작품 말미에서 청년은 이 시를 읊은 후 뺏어버리고 곧이어 죽은 채로 발견되는데, 김명순은 앞에서 번역했던 시를 이 장면에서 그대로 쓰지 않았다. ‘내반듯이’ 부분을 수정하여 ‘나는’의 위치를 위쪽 행으로 옮기고 溪間(계간)의 수식어 ‘空虛(공허)한’을 ‘그뵈인’으로 바꾸었다. 연인과 다시 만날 세계를 뜻하는 계곡의 수식어를 원문의 의미를 살려 옮기면서도 한자어에서 우리말로 바꾸고 ‘나는’의 위치를 다른 행으로 나눠 휴지를 둠으로써 연인과의 상봉을 꿈꾸는 청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5) 공작부인이 청년에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장면에서 김명순은 원문의 “we shall meet”를 “우리는 만남시다”로 번역하였으며 이 작품의 제목과 시에서만 ‘상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예문(2)

ST: Thou wast that all to me, loveTT: 꿈이여, 네가내모든것이다.

청년이 쓴 시의 첫 행에서 원문의 ‘사랑’을 ‘꿈’으로 바꿔서 옮긴 부분도 흥미롭다. 청년은 죽기 전 나에게 ‘꿈꾸는 것’이 일생의 업이었으며 ‘진정한 꿈의 나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작품 속에서 사랑과 죽음, 꿈은 하나로 이어지고 죽음을 통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장소인 ‘꿈의 나라’로 향한다는 점에서 ‘사랑’을 ‘꿈’으로 바꾼 것은 의미 있는 개입으로 보인다. 청년이 쓴 시에서 꿈은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나며, 김명순이 번역한 청년의 시에서 꿈의 세계는 더욱 선명하게 그려진다. 예문(3)에서 ‘trance’는 ‘狂夢(광몽)’으로 옮겨져 지금 두 연인이 처해있는 현실은 미친 꿈과 같고, 밤이 되면 꿈은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바로 그곳이 님의 벗은 발이 빛나는 곳이자 검은 눈이 응시하는 곳이며 아름다운 천상의 공간이며 연인이 상봉할 공간이다. 또한 김명순은 원문에 없었던 새로운 행을 추가하였는데, 추가된 “거기야말로있다!”에서 ‘거기’는 “나를爲하여 거기멈을러라”라는 시에서 죽음을 통해 연인과의 상봉을 약속한 ‘거기’와도 연결되며 청년이 꿈꾸는 세계가 ‘광몽’인 현실을 벗어난 밤의 공간이자 연인과 만날 천상의 공간임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예문(3)

ST: Now all my days are trances,

And all my nightly dreams

Are where thy grey eye glances,

And where thy footstep gleams-

In what ethereal dances,

By what Italian streams.

TT: 只今내날들은모다狂夢이어서

밤마다꿈은天翔하야

아름다운 이타리아의물홀르는近處

奇妙한天女の舞蹈로써

님의벗은발이빛나는곳에

저검은눈이凝視하는곳에

—거과야말로있다!6)

4.2 전통적 결혼의 부정적 묘사

공작부인과 청년은 젊고 아름다운 존재로 그려지며 두 연인의 아름다움은 많은 수식어를 통해 매우 길게 강조되고 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멘토니 공작은 상당히 간략하게 묘사된다. 그리고 공작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old and intriguing”은 “年老(연로)한 耽色家(탐색가)”로 번역되어있다.

예문(4)

ST: the old and intriguing Mentoni

TT: 저年老한 耽色家멘토니

‘intriguing’(음모를 꾸미는)이라는 원문의 수식어를 ‘여색을 탐하는’ 호색가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멘토니 공작이 이후 재등장하는 장면에서도 이와 같은 늙은 호색가의 이미지는 반복적으로 전달된다.

예문(5)

ST: stood in full dress, the Satyr-like figure of Mentoni himself

TT: 저年老하여서도 오히려女色에耽하는 멘토니公爵이사지일의貌樣가티 盛裝을하고서있다

‘사티로스(satyr)’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의 괴물로, 호색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김명순은 사티로스를 생략하지 않고 “사지일의貌樣(모양)가티”로 옮기면서 “女色(여색)에耽(탐)하는”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사티로

6) 원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진아의 번역(2018: 258)을 추가한다.

이제 나의 시간은 모두 영혼 없이 흘러가고,

밤에 꾸는 꿈은 전부

검은 눈이 흘깃거리는 곳이며,

그대의 발자국이 반짝이는 곳이오.

알 수 없는 이탈리아의 시냇가에서

이름 모를 천상의 춤을 추면서.

스가 상징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여 사티로스라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원문에 없었던 “저年老(연로)하여서도 오히려”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늙은 호색가라는 수식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원문 어휘의 의미를 다소 벗어나거나 표현을 일부 추가하면서 멘토니 공작을 여색을 탐하는 나이든 남성 인물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으며, 젊고 아름다운 두 연인과 대조를 이루는 가부장제의 전형적인 부정적 남성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구관습에 따른 전통적 결혼을 부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4.3 모성의 배제

여주인공이 어머니로서 느끼는 마음, 예를 들어 아이를 잃었을 때나 찾았을 때의 감정선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공작부인의 모성애를 표현하는 부분이 상당히 생략되어 번역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예문(6)

ST: All efforts proved in vain. Many of the most energetic in the search were relaxing their exertions, and yielding to a gloomy sorrow. There seemed but little hope for the child (how much less than for the mother!)
 TT: 모든努力은다헛되어졌다. 물속에서小兒를 搜索하느라고 잇는힘을다한여러사람들은 彈力일흔고무가티되어 다만감감한悲哀에 몸을맞겼다. 그래서小兒를차저낼希望은 자못쓰치엇슬때다.

바다에 빠진 아이를 찾으려는 많은 이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듯한 장면에서 김명순은 원문의 “how much less than for the mother!” 부분을 번역하지 않고 생략하였다. 아이를 찾을 희망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비탄에 빠졌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강조하는 문장은 번역문에서 생략한 것이다. 곧이어 청년이 바다로 뛰어들어 아이를 찾아 건네주고 공작부인이 아이를 안으려는 장면에서도 원문 내용이 일부 생략되고 간략하게 옮겨졌다.

예문(7)

ST: But the Marchesa! She will now receive her child — she will press it to her heart — she will cling to its little form, and smother it with her caresses. Alas! another's arms have taken it from the stranger — another's arms have taken it away, and born it afar off, unnoticed, into the palace!

TT(1): 그러나公爵夫人은 그손으로 그의小兒를 바다서꼭안을듯한데 어찌 한理由인지 다른사람의팔이 그알지못하는젊은이의손에서 小兒를바다서 어느듯 놓흔宮殿안으로 가져갔다.

TT(2)7): 하지만 후작부인은! 그녀는 아이를 받아 가슴에 꼭 끌어안고 그 작은 몸을 꼭 붙들고서 쓰다듬어주려고 했다. 아뿔사! 하지만 다른 이의 손이 아이를 낫선 이에게서 받았고, 다른 이가 아이를 빼앗아 들고 멀리, 아무도 모르게, 저택 안으로 데려가버렸다.

원문에서는 아이를 찾은 후 품에 안으려는 공작부인의 묘사에서 “she will press it to her heart”(가슴에 꼭 끌어안고), “she will cling to its little form”(작은 몸을 꼭 붙들고서), “and smother it with her caresses”(쓰다듬어주려고)라는 표현을 통해 자칫 죽을 뻔했던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애뜻한 마음이 강조되고 있으나, 김명순의 번역에서는 여주인공의 모성애를 보여주는 이러한 표현들이 모두 생략되고 “그손으로 그의小兒(소아)를 바다서꼭안을듯한데”로 간결하게 옮겨졌다.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청년을 마주친 여주인공의 표정 변화에 관한 길고 상세한 묘사가 충실하게 옮겨지고 있는 것과 다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단락에서도 “in the eager haste and terror of a mother's heart”(아이 가물에 빠진 것을 본 어머니가 다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권진아 역) 부분도 김명순의 번역본에는 “홀로急變(급변)을일으키고 狂熱(광열)스럽게”로 옮겨지며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설명은 생략되었다. 이처럼 여주인공의 모성애를 설명하는 원문 내용이 김명순의 번역본에서 여러 차례 생략되는 모습은 모성에 관한 언급이 배제되는 김명순의 소설 속 모습과 닮아있다.

7) TT1은 김명순의 번역이며 참조할 수 있도록 권진아의 번역도 TT2로 추가하였다.

4.4 이상화된 죽음의 강조

이 작품에는 죽음을 이상화하는 구절이 여러 번 등장하며 이러한 구절들이 생략 없이 충실하게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웃으며 죽는 것은 “the most glorious of all glorious deaths”라고 표현된 원문은 “모든榮光(영광)스러운 죽엄가운데 그중 榮光(영광)스러운것”으로 옮겨지고 “magnificent end”는 “莊麗(장려)한 臨終(임종)”으로 번역되어 ‘가장 영광스러운’, ‘장엄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이상화된 죽음을 볼 수 있다.

예문(8)

ST: To die laughing must be the most glorious of all glorious deaths!

TT: 웃으면서죽는다는일은 모든榮光스러운죽엄가운데 그중 榮光스러운것이다!

ST: characters who came to the same magnificent end

TT: 이가튼 莊麗한臨終을한人物

또한 청년이 쓴 시에서 원문의 “dream too bright to last” 구절은 그대로 해석하면 너무 밝아서 계속될 수 없는 꿈으로 옮길 수 있지만, 김명순은 ‘살아흐른다’라는 표현을 추가해 “아아살아흐르기는넘우나빛나든꿈”으로 번역했다. 아래 행의 “아아슬어지려고나왔던” 구절과 리듬을 맞추기 위한 선택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빛나는 꿈을 ‘살아흐르지 않는’ 죽음의 상태로 그리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다.

예문(9)

ST: Ah, dream too bright to last!

Ah, starry Hope! that didst arise

But to be overcast!

TT: 아아살아흐르기는넘우나빛나든꿈이어!

아아, 아아슬어지려고나왔던

希望의별한울이어!

죽은 청년의 모습을 발견한 장면의 번역도 흥미롭다. 아래 예문에서 김명순

은 원문의 “his lately beaming eyes”를 “죽음전까지도 새삼아케빛나든눈”으로 옮기면서 ‘조금 전까지도 빛나던 눈’의 수식어로 원문에 없었던 ‘새까맣게’라는 수식어를 추가하였고, 죽은 청년의 눈을 묘사하는 원문의 “eyes were riveted in death”를 “죽음에못질되어있다”로 번역하였다.

예문(10)

ST: But his limbs were rigid — his lips were livid — his lately beaming eyes were riveted in death.

TT: 그러나저의四肢는 뻣뻣하였다—저의 입살은 鉛色이었다—저의죽음 전까지도 새삼아케빛나든눈은 죽음에못질되어있다.

공작부인이 연인이 있는 장소를 응시하는 장면에서도 원문에 ‘riveted’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못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고 “아주 저편에牢獄(뇌옥)의壁(벽)을恍惚(황홀)하게바라보고잇었다”로 번역되었음을 고려할 때, 김명순은 ‘riveted’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새까맣게 빛나던 눈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청년의 죽음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죽음에못질되어있다”라고 번역한 것은 ‘riveted’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한 선택일 뿐 아니라 죽음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5.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여성 작가 김명순이 1922년 번역하여 발표한 단편 소설 「相逢」을 중심으로 작품 선택의 배경과 번역 방식을 살펴보았다.

한국 근대 문단에 소개된 포의 다른 두 소설과 달리 *The Assignment*은 김명순이 악마파 예술로 높이 평가한 포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김명순이 작가로서 추구하는 주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김명순 작품세계의 중요한 주제인 전통적 결혼제도에 대한 거부와 낭만적 사랑의 실천을 서사화하며, 유부녀와 미혼남의 사랑을 다루고 늙은 공작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반면 젊은

두 연인은 아름답고 이상화된 존재로 그려지고, 청년의 정신적 사랑을 낭만적으로 재구성하며, 모성애를 강조하기보다 연인과의 사랑을 추구하는 여주인공을 형상화하고, 현실적 결합이 불가능한 사랑과 비극적 결말로 마무리되고 죽음의 이상화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김명순 작품세계와 접점이 큰 작품이라는 점에서 작품 선택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相逢」의 번역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중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본 없이 번역문에 나타나는 모든 변용 양상을 번역가의 선택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있다. 하지만 김명순 작품세계의 중요한 특징인 낭만적 사랑의 추구, 전통적 결혼에 대한 부정적 묘사, 모성의 배제, 죽음과 비극적 결말이 나타나는 장면에 주목하여 번역 방식을 살펴본 결과, 원작에 없는 수식어의 추가, 원문 생략과 의역 등 여러 개입과 변형 양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비밀스러운 만남을 뜻하는 ‘밀회’보다 현실에서 함께할 수 없는 연인이 죽음을 통해 다시 만난다는 서사를 부각하는 ‘상봉’이라는 제목을 선택하고, ‘love’를 ‘꿈’으로 바꾸고 원문에 없었던 새로운 행을 추가하며 죽음을 통해 연인과 재회할 꿈의 세계를 강조하고, ‘intriguing’을 ‘耽色家(탐색가)’로 번역하고 ‘저年老하여서도 오히려’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여색을 탐하는 연로한 남성상을 일관되게 형상화하고, 여주인공의 모성애를 보여주는 원문의 표현을 여러 차례 생략하고, 자살한 청년의 눈을 서술하는 장면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전달하였다.

「相逢」을 중심으로 김명순의 작품 선택 배경과 번역 방식을 살펴본 결과,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관과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작가의 작품을 선택하여 번역하고, 번역문에서도 작가로서의 시선이 드러나며 작가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번역행위에 작가로서의 세계관과 정체성이 깊숙하게 투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김명순에게 번역은 창작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문학적 실천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는 김명순이 번역한 소설 작품만 부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소설뿐 아니라 시를 포함한 여러 번역 텍스트로 논의의 폭을 넓혀 번역 경로를 추적하고 치밀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여 김명순 번역의 독자성을 밝히고 문학사적 의의를 논의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숨은 주어들’(박진영 2013: 237)로 남아있는

번역 주체들의 성취와 의미를 조명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소영, 윤정화 (2013) 「근대적 번역행위의 동인과 번역양상 - 이화여전 교지 이화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학회, 『젠더와 번역: 여성 지의 형성과 변전』, 서울: 소명출판, 279-308.
- 권진아 옮김 (2018) 『모르그 가의 살인』, 서울: 시공사(Edgar Allan Poe's *The Murders in the Rue Morgue*).
- 김미교 (2008) 「김명순 문학연구: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지 (2022) 「근대 전환기 여성 번역가의 등장과 근대적 인식론의 성립 - 잡지 『우리의 가뎡』에 연재된 영한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7: 295-316.
- 김복순 (1995) 「‘지배와 해방’의 문학 - 김명순론」,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근대편』, 서울: 한길사, 27-72.
- 김옥동 (2010a) 『번역과 한국의 근대』, 서울: 소명출판.
- 김옥동 (2010b) 『근대의 세 번역가: 서재필·최남선·김억』, 서울: 소명출판.
- 김옥영 (2003) 「1920-30년대 한국 여성잡지의 모성담론에 관한 연구: ‘신여성’, ‘신가정’,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 175-202.
- 김윤선 (2013) 「번역 텍스트의 젠더화와 여성의 모더니티 - 신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학회, 『젠더와 번역: 여성 지의 형성과 변전』, 서울: 소명출판, 243-278.
- 김정우 (2006) 「1920-30년대 번역 소설의 어휘 양상」, 『번역학연구』 7(1): 45-66.
- 김준희 (2007) 『김억의 번역이 한국 근대시에 미친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김행숙 (2005) 『문학이란 무엇이었는가: 1920년대 동인지 문학의 근대성』, 서울: 소명출판.

- 김현실 (1980) 『1920년대 번역 미국소설 연구 - 그 수용양상 및 영향의 측면에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박지영 (2012) 「위태로운 정체성, 횡단하는 경계인 - ‘여성번역가/번역’ 연구를 위하여」, 『여성문학연구』 28: 9-54.
- 박진영 (2013)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와 번역 주체」, 『현대문학의 연구』 50: 219-256.
- 손성준 (2014) 「한국 근대소설사의 전개와 번역 - 1920년대까지의 양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6: 41-76.
- 손성준 (2015) 「한국 근대소설과 번역창작의 복합주체: 염상섭과 현진건의 통속소설 번역과 그 이후」, 『한국현대문학연구』 12: 45-85
- 손성준 (2020) 「번역의 발화, 창작의 발화 -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에서 번역(주체)의 자리」, 『현대문학의 연구』 70: 85-120.
- 송명희 (2014) 「신여성의 사랑과 자유이혼: 김명순의 『나는 사랑한다』」, 『국어문학』 56: 317-341.
- 신혜수 (2016) 「김명순의 하우스프트만 문화번역 연구 - 「돌아다볼 때」와 「외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69: 175-199.
- 안미영 (2019) 「한국 근대 문학에서 에드거 앨런 포 문학의 수용」, 『영주어문』 43: 233-252.
- 안미영 (2020) 「에드거 앨런 포의 문학이론과 공포소설의 수용」, 『리터러시 연구』 11(2): 331-353.
- 안숙원 (2003) 「김명순과 「의심의 소녀」 다시 읽기 - E. A. 포우의 단편 「The Assignment」과 비교문학적 연구」, 안숙원, 『한국 여성서사체와 그 시학』, 서울: 예림기획, 84-113.
- 우수영 (2013) 「〈어둠의 힘〉에 나타난 이광수의 번역 의도」, 『어문론총』 58: 309-330.
- 윤경애 (2020) 「홍난파의 미발표 단편소설 번역집 『다복한 사형수』의 번역 계보 및 번역사적 의의 고찰」, 『번역학연구』 21(2): 143-164.
- 이단비 (2021) 「정지용의 『기탄잘리』 번역과 감각의 이행」, 『한국시학연구』 65: 195-226.
- 이민영 (2009) 「김명순 희곡의 상징주의적 경향 연구」, 『어문학』 103: 399-431.

- 정응수 (2020) 「김동인의 번역소설 『마지막 오후』의 번역상 특징」, 『동북아 문화연구』 65: 371-385.
- 최리영 (2012) 「김억의 ‘창작적 번역’ 연구 - 『잃어진 진주』와 『기탄자리』를 중심으로」, 『어문학』 117: 267-288.
- 최주한 (2016) 「이광수와 번역 - 『어둠의 힘』(1923)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4: 423-450.
- 한기형 (2011) 「중역되는 사상, 직역되는 문학: 개벽의 번역관에 나타난 식민지 검열과 이중출판시장의 간극」, 『아세아연구』 54(4): 65-85.
- 허윤희 (2005) 「정지용과 번역」, 『민족문학사연구』 28: 98-131
- Hyun, Theresa (2003) *Writing Women in Korea: Translation and Feminism in the Colonial Perio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김혜동 역 (2004) 『번역과 창작: 한국 근대 여성 작가들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Tatsumi, Takayuki (2020) ‘Editing and Anthologizing Poe in Japan’, in Emron Esplin and Margarida Vale de Gato (eds) *Anthologizing Poe: Editions, Translations, and (Trans)National Canons*, PA: Lehigh UP, 351-367.

<분석 자료>

김명순 (1922) 「相逢」, 『개벽』 29.

Poe, Edgar Allan (1834) *The Assignment*.

Available at: <https://livros01.livrosgratis.com.br/ln000001.pdf>

[Abstract]

**Kim My ng-sun, a Pioneering Woman Translator in Colonial Korea:
Focusing on Her 1922 Translation of Poe's *The Assignment***

Jagyeo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n female translators in the colonial period have received relatively little scholarly attention compared to their male counterparts in the field of Korean literary translation studies. Hence, this study aims to spotlight Kim My ng-sun, a woman writer who was the first to have translated Edgar Allan Poe's poetry and novella into the Korean language. Focusing on her 1922 translation of Poe's *The Assignment*, retitled as "Sangbong", this study reflects on Kim My ng-sun's choice of this particular work and her translation approach, especially in relation to her literary perspective. This paper reveals that Kim My ng-sun's decision to translate *The Assignment* was influenced not only by her admiration for Poe but also because the novella resonated with her own thematic focus as a novelist. These themes include the pursuit of romantic love outside the traditional marriage system, resistance to loveless marriage, negation of maternal affection, and an inevitable tragic ending. The interventions foregrounding such themes are also noteworthy. For example, a poem was slightly changed to accentuate the young male character's dream of meeting his lover posthumously; the image of the husband as an old womanizer was reinforced; original expressions of maternal love were deleted; and death was described impressively, with expressions added to the translation. This shows that translation was an extension of her literary acts as a writer, calling due attention to neglected female translators in the early modern history of Korea.

Keywords: Novel translation in colonial Korea, Kim Myöng-sun, translation of Poe's
The Assig nation, female translator, Edgar Allan Poe

주제어: 식민지 시기 소설 번역, 김명순, 상봉, 여성 번역가, 에드거 앨런 포

김자경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박사후연구원

vandi98@naver.com

관심 분야: 문학 번역, 번역가 연구

논문 투고: 2023년 11월 15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12월 1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12월 15일

게재 확정: 2023년 12월 19일